#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도전

## 임실군--임실교육지원청-원광대, 업무 협약… 치즈·펫 등 지역 특성 살려 공동 대응

임실군(군수 심민)과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남궁세창)이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에 뜻을 함께하고, 치즈와 펫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도전한다.

군은 심 민 군수와 남궁세창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과 함께 침체된 임실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임실군 교육발전특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서 이들 기관은 'K-펫치즈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에듀케어 도시, 임실'이란 주제로 임실군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 환경 조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7월경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지역은 최대 30억원씩 3개년 동안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임실군과 협력 기관은 지난 1월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임실군만의 특화산업인 임실치즈과 반려동물을 주제로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했다.

임실군은 심 민 군수와 남궁세창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과 함께 임실군 교육발전특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더 나아가 임실 관내 기업에 취업, 지역 내 정주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인구 소멸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임실형 상생 돌봄 체계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진로 진학 시스템 구축, 전북펫고 및 한국치즈과학고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고 육성 등 교육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오수의견설화의 스토리를 살린 전북펫고등학교와 임실치즈의 정통성을 자랑하는 한국치즈과학고의 특별한 교육 특성을 살려 생애 전 주기 맞춤형 교육 실현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군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손을 맞잡고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뛰어든 만큼 선정될 경우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 내 좋은 일자리 확대 등 지역에서 일하면서 지역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치즈의 고장이자 오수의견설화를 토대로 한 반려동물의 성지로 성장하는 임실군의 특성을 잘 살려내 공모에 대응하겠다"며 "교육지원청과 대학이 함께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2024년 도 지원민방위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순창군, 14개 시군 160명 참가

순창군(최영일 군수)이 지난 20일 부안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도 지원민방위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원의 주민대피, 현장수습, 복구 등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됐으며, 14개 시군에서 총 28팀, 약 160명이 참가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2개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순창군을 대표한 민방위대는 총 12명의 지원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됐으며, 대회를 앞두고 순창소방서로부터 실전과 같은 교육을 받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순창군이 지난 20일 부안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도 지원민방위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좋은 성과를 이룬 지원 민방위대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안전지킴이로서 민방위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한 순창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추진

## 순창군, 23개 마을 취약계층 대상 생활용품 수리·세탁서비스 등

순창군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것으로, 공모 선정으로 군은 사업 추진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관내 고령자,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수리, 세탁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최근 적성면 우계마을을 시작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 칼갈이와 같은 생활용품 수리, 농기구 수리, 노후주택 방충망 설치, 전구 교체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군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동네목수단 등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는 소멸 위기를 맞이한 농촌지역에서 관내 조직과 연대 협력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본 사업의 주민 만족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앙부처, 전북도 등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사매면 노봉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공모 선정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4월 공모를 신청한 사매면 노봉마을이 1차 서류평가, 2차 5월 23일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혼불과 함께하는 특별한 동행, 복사꽃길 아름다운 노봉마을'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혼불문학관과 연계 △플로팅 건축(수상 건축물) 설치 △복사꽃나무 식재 △사계절 화단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주민 휴식공간 및 관광객이 머물며 혼불을 느끼고 돌아가는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 추진시 마을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서 2021년 사업이 없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2019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고, 현재 추진중인 주천 고촌마을은 9월중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양근식 건축과장은 "사매면 노봉마을은 소설 혼불의 소재지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노봉마을만의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통해 경관 개선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그린황도 복숭아 홍콩으로 첫 수출

남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남원 그린황도 복숭아'를 춘향골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1톤(416박스, 2.5kg)을 공동 선별해 지난 21일 홍콩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산물 수출 선도도시로써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그동안 시는 춘향골농협, 남원원예농협,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과 복숭아 유통·판매망의 다양화를 위해 올해 초 국내외 바이어와 여러차례 회의하며, 홍콩 바이어와 수출 협상을 통해 올 8월까지 항공으로 매주 4차례 총 60여톤 수출을 결정했다.

남원지역에서는 올해 305 농가가 330ha에서 복숭아 3,600여톤을 생산, 춘향골농협과 남원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최신식 복숭아 선별기 도입으로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확보해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납품하고 있다.

수출 선적식에 참석한 곽주영 국장은 "남원 복숭아는 농민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명품 중의 명품 복숭아라며,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생산단체, 행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 60년생 시민 대상 폐렴구균 13가 무료 예방 접종

남원시에서는 1960년생(1960.1.1~1960.12.31)인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폐렴구균 13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며, 다만, 1960년생 무료 접종은 올해 한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접종 불가해 본인이 대상자라면 관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올해 안에 접종해야 한다.

성인을 대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은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하는 폐렴구균 23가와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하고 있는 폐렴구균 13가이다.

폐렴구균13가 접종 1년 후 폐렴구균 23가를 접종하였을 경우 단독접종한 경우보다 높은 항체가 형성된다. 따라서, 남원시민 중 1960년생은 올해 지자체 예방접종사업에서 시행하는 폐렴구균13가를 무료로 접종하고, 내년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인 폐렴구균23가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단, 병원에서 폐렴구균13가 예방접종을 이미 한 적이 있다면 재접종은 불가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가루쌀 '바로미2' 직파재배 연시회 개최

순창군이 쌀 수급 안정과 벼농사 최신 기술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구림면 화암리 일원에서 가루쌀 '바로미2' 직파재배 연시회가 개최했다.

가루쌀 전문 생산기업인 두레영농조합법인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관계자와 지역 관심 농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바로미2'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쌀가루 전용 벼로, 일반 쌀과 달리 쌀알 구조가 성글고 물러 쌀가루 제조가 쉽고 건식제분이 가능해 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앙 시기가 6월 하순으로 다른 동계작물과 안정적인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바로미2의 직파재배 방법에 대한 실습과 더불어, 재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과 효율적인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순창=이양원 기자